



■ 음악회는, 이택주 교수[이화여대]의 지휘와 서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 아래 메조 소프라노 김선정씨, 첼로 이숙정씨, 바이올린 민유경씨, 테너 나승서씨가 참여하여 생상의 오페라 ‘삼손과 데릴라’ 중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‘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’ , 김동진의 ‘봄이 오면’ 등을 비롯하여 약 10곡을 공연하였음. 특히, 예술의 전당 사장을 역임한 김용배 교수[추계예술대]의 해설을 통해 관객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클래식의 매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